

## 부품소재기업의 M&A 전문기관 선정

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, 전문화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. 우선, 국내부품소재기업의 규모확대와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M&A를 돕는 지원기관으로 화인회계법인, 큐더스, 흥국증권 3개기관을 국내 M&A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(09.2.10)하였다.

국내 M&A 지원은 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사건대응형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준비형 구조조정 분야의 2개 유형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. 위기대응형 구조조정 분야는 매출 감소 및 외부차입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경영능력, 기술능력,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M&A 지원하고, 미래준비형 구조조정 분야는 하이브리드자동차부품, 초경량 탄소섬유 등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R&D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전문화 지원한다.

또한 국내M&A지원과는 별도로,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원천기술도입 촉진을 목표로, 국내부품소재기업의 해외 M&A를 지원하는 글로벌 M&A데스크 사업도 추진한다.

지경부는 지난 '08.12.10 삼일회계법인, 삼정

KPMG,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글로벌 M&A데스크 실행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. 이들 3개 실행기관은 '08년 1차 사업을 통해 M&A 4건, 기술제휴 5건을 성사시켰다. 대원강업의 폴란드 D&D스프링인수 (인수규모 230억원), DTR의 영국 A사 방진사업인수(인수규모 150억원) 등 M&A 4건(인수규모 800억원)과 비아이이엠티 Wafer case 기술도입(일본 Vantec 사) 등 5건 전략적제휴이다.

한편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네트워크 편입을 위해 미국, 일본, 중국 등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. 글로벌기업이 집중된 미국의 경우는, 기업들간 R&D 단계부터 조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, 아웃소싱, 라이선싱 등 글로벌 수요기업들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부품소재 파트너쉽 형성을 지원한다.

이를 위해 지난 1월 GE, IBM 등 글로벌 기업의 사업전략 설명·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, 향후 방미심층상담회(5월), 글로벌 기업 방한 상담회(10월)를 계획할 예정이다. 또한 세계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시장을 겨냥, 중국내 한국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이 중국 토종기업 및 중국내 외국기업으로 확대



“

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네트워크 편입을 위해 미국, 일본, 중국 등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. 글로벌기업이 집중된 미국의 경우는, 기업들간 R&D 단계부터 조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, 아웃소싱, 라이선싱 등 글로벌 수요기업들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부품소재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한다.

”

될 수 있도록 국내부품소재기업의 중국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한다.

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품목군(36개)은 경쟁력 강화 품목군으로 다이오드, 자기헤드 등 12개 전기 전자부품 및 프리즘, 평판재료의 판 등 5개 정밀기기 품목이고, 신시장개척 품목군으로 모터사이클엔진, 기어박스 등 11개 수송장비부품 및 선박 추진용 엔진 등 8개 일반기계 품목이다.

중국 현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수요기업 및 유통기업의 부품소재 수요를 파악하고, 6월, 11월 중국 산업 클러스터별로 국내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 일본은 히타치(전기전자), 토요타(자동차) 등 글로벌 수요기업을 타겟팅하여, 신뢰성 인증(R-mark) 부품소재품목을 중심으로 한일 부품소재 상생협력단을 파견(9월)하고, 신뢰성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간 상호 인증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